

# “전주종합경기장 민간투자 개발을”

### 이미숙 의원 5분 발언 “무리한 재정사업 중단” 상업지역·공원 공존 제안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이 장기 표류하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사업 문제를 풀기 위해 시 재정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민간투자 개발방식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신기한 고문서 복원 과정 18일 서울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 주관을 맞아 특별 견학프로그램을 찾은 시민들이 자료복원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지루한 소송전은 전주시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표류하는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의 현실적 대안으로 민간투자(BOT, Built Operate Transfer) 방식을 제안했다. 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을 민간사업자가 대체시설(야구장, 육상경기장)을 지어주고, 그 비용을 상정해 부지를 임대받은 후 30년 후에 전주시에 땅과

다시 건물을 돌려주는 BOT 방식으로 재추진,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민간투자 개발 방식에 상업지역과 공원이 공존하는 아이템 공도를 통한 공공성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전시컨벤션, 호텔 건립이 시급한 상황에서 시 재정사업으로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 추진은 현실적

으로 어렵다”며 “이제라도 민간투자 개발방식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결합해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의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종합경기장 부지는 전시컨벤션센터를 통한 마이스산업의 중심지로 밀레니엄파크를 통한 체류형 관광지의 중심 역할이 기대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사업을 어렵게 만든 전주시가 책임지고 현실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재 기자

# “정부 교육정책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

### 김승환 교육감, 총선 결과 평가…“계속 밀어붙인다면 국민 의사 무시하는 꼴”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무상보육 등 정부 교육정책은 국민신뢰를 잃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가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고 이는 헌법 이본적으로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는 그 지역의 유권자들로부터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으로, 이 정당성의 크기는 다 같지 않고 득표율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육감은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는 임기 동안 계속 변해 더 작아지거나 더 커질 수 있다”면서 “헌법 이본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임기 동안 그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계속 커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 결과는 현 집권세력의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면서 “교육 분야의 경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무상보육 등 정부의 각종 교육 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정당성은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돼 있다”며 “민주적 정당성의 사슬이 필요하다”는 외국학자

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감의 자리에 있으면서 민주적 정당성의 사슬을 잘 이어가겠다”고 밝힌 뒤 “도교육청은 항상 이 점에 주목하면서 전북교육행정을 잘 이끌어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도 나타났듯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아니오’라고 명확하게 말해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올해부터 초·중·고교 학생과 교사를 상대

로 통일안보교육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체험·참여 중심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앞으로 교과 4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6시간 등 연간 10시간 이상 통일안보 교육을 확대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활동을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음악 시간에 ‘통일송’을 부르게 하거나 이승복 기념관 견학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으며, 시도교육청 평가에도 ‘통일교육 활성화’ 항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연간 10시간 이상 통일안보 교육 확대, 시도교육청 평가 반영 등 정부의 획일적인 통일교육 계획은 문제가 많다”면서 “도내 각 단위학교에서 행해지는 통일교육은 전북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혈액투석 6년 40세 고령 첫아이 출산

신장이식을 받은 40대 여성이 만성 신부전과 노산을 극복하고 첫아이를 순산해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전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만성신부전으로 6년째 혈액투석 중인 김은자(40)씨가 임신 35주 4일만인 지난 3월 22일 1.9kg의 건강한 여아를 출산했다. 전북대병원은 김씨의 아이의 안전을 고려해 제왕절개로 분만에 성공

했으며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분만 6일만인 3월 28일 병원을 퇴원했다. 만성신부전으로 신장이식을 받고 혈액투석까지 받고 있는 40대 산모가 건강한 아이를 순산한 것은 기적 같은 일로 평가된다. 산부인과 이정현 교수는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건강하게 출산하여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전주 온통 숲 프로젝트 본격 추진

### 14억 투입 7개 사업 전개

전주시가 도심 생활권 곳곳에 각종 숲을 조성하는 ‘전주 온통 숲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화한다. 전주시는 올해 총 사업비 14억5000만원을 투입해 △도심동네숲 △벽면녹화 △육상녹화 △녹색예술거리 나눔숲 △복지시설 나눔숲 △송천그린웨이 조성 △전통한식정자 설치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온통숲 조성사업은 보행자전용도로, 자투리땅 등에 도심 동네숲 및 쉼터를 만들어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등 ‘생태’를 복원하고 건강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사업대상지 11곳이 선정됐다. 먼저, 평화동 한양병원 옆 보행자도로와 서곡광장 등 3곳에는 2억 5000만원이 투입돼 도심 동네숲이

조성된다. 오는 6월 중 사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벽면녹화사업의 경우, 시는 전주화산체육관 인근 등 3개소에 5000만원을 투입해 도로변의 삭막한 콘크리트 응벽에 다양한 식물을 식재하는 등 생태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송천동 교통 요충지에 위치한 기존의 화단을 전통한식정자와 어울리게 보완하고, 화단을 확대 조성하는 가로변 그린웨이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녹색예술거리 나눔숲은 전북대 구정문~신정문을 잇는 도로변 인도에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이다. 시는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삼천동 선덕효심원과 용복동 소화진달래집 등 관내 복지시설 두 곳을 대상으로 나눔 숲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는 중화산2동 주민센터의 건물 옥상을 친환경 녹색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옥상녹화사업도 전개한다. /김영재 기자